

## 古里의 어제와 来日



朴 源 泰

〈韓電 古里原子力本部 行政室長〉

R·타고르는 「江물은 흐릅니다」라는 詩에서 江 물을 人生에 比喻해서 노래를 부르듯이 平和스럽고 조용하던 南海의 漁村에 우리나라의 에너지技術史上 큰 變革을 안고 새롭고 거센 물결이 닥쳐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俗談에 「가난은 나라도 救濟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이 더욱이 에너지 貧國이야 말로 오늘날 資源經濟時代에 있어서 產業發展을 이룩할 수가 없어 닥아오는 에너지難을 對備하여 우리는 슬기롭고 대담한 判斷力を 갖고 일찌기 「妖怪 우라늄235」를 選擇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年代를 原子力初期段階라고 본다면 1980年代는 原子力成長段階라고 일컬을 수 있고, 1990年代는 原子力成熟段階가 될 것이라고 미루어 볼때 지금이야 말로 技術드라

이브, 高級人力確保 및 技術蓄積을 위한 果敢한 研究開發投資와 有機的인 開發前線形成으로 本格的인 原子力時代 突入에로의 体制整備가 慎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느 調査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研究開發費規模가 美國, 西獨, 日本 等은 이미 1970年代에 접어 들면서 2%線을 上廻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is 올해에도 겨우 2%線 未滿이며 技術水準도 1970年代末 現在로 美國의 能力を 100으로 잡았을때 日本은 44.2, 西獨은 37.7인데 반하여 우리나라 is 고작 1.7이었다하여 물론 지금이야 훨씬 나아졌겠지만 아무리 고쳐 빠져도 거의 約20年쯤은 뒤떨어져 있음을 단적으로 내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 우리는 資本도 모자라고 技術도 뒤 떨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優秀한 頭腦는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미 故人이 된 허먼·칸의 달콤한豫言이나 樂觀論을 빌지 않더라도 옛날부터 東方禮義國이라고 불려왔고 유구한 歷史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is 좋은 氣候와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地下資源 대신 人力資源을 받아 不過 數十年사이에 일약 後進國에서 發展 또는 開發途上國으로 탈바꿈하여 新工業國家群에 屬하게끔 한 原動力이 바로 天賦의 인材能이라 하겠다.

또한, 우리 韓國人の 心性에는 마치 콩을 응어리지게 하는 간수같은 精神的인 核이 옛부터 潛在돼 내려와 그 勤勉과 끈기에 있어서는 「日本 사람을 계을려 보이게 만들 수 있는 世界唯一의 國民은 韓國 사람 밖에 없다」고 1977년 6月 뉴스위크誌에서 極讚받을 정도이다.

사람이 砲彈에 맞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眞理를 알아내고 이를 實踐에 옮기는 것 처럼 代替에너지 技術開發과 尖端產業 發展없이는 치열한 國際競爭社會에 이겨낼 수 없다는 鐵則을 銘心

하여 꾸준히 對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觀點으로 볼 때 原子力事業이 脱油代替에너지源과 尖端技術開發에 寄與하는 바는 너무나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原子力產業中 제일 먼저 시작한 原子力發電은 一般的으로 國民들이 느끼는 印象은 危險하고 무섭다는 생각과 더 나아가 核武器와 聯關시키게 되는 先入感을 갖는데, 實際 그 내용을 알게되면 가장 安全하고 有用한 에너지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와 같은 先進型開發國家인 경우 產業構造의 高度化와 重工業化에 따라 계속 늘어날 電力需要에 對備하여 값싸고 安定된 에너지로서 原子力主導型 電源開發推進으로 電力需給의 圓滑과 關聯產業의 技術開發促進에 미친 成果는 높이 評價하고도 남음이 있다.

元來 原子力發電技術은 1953年12月에 「아이크」가 유엔總會에서 「Atom for Peace」라는 演說을 通해서 國防目的으로 開發한 原子力技術을 平和的인 目的으로 쓰이도록 美國 民間電力會社 및 海外에 公開하겠다고 宣言하였던 것이다. 그 뒤 1954年에 美國 最初의 原子力發電所인 「Shipping Port發電所 (72,000KWe)」를 아이크 參席裡에 着工하였던 것이 世界的 原子力發電史上의, 級시라고 할 수 있다.

그 後 17年이 지난 1971年에 우리나라에는 이곳 古里에 처음으로 歷史的인 原子力發電所(580,000 KWe)着工式이 舉行되어 1978年에는 竣工運轉함으로써 世界에서 21位이며 東洋에서는 3位의 原子力發電保有國이 되었던 感激스러운 해이기도 하였다.

앞으로 1986年 6月에 6號機까지 完成되면 古里만 하더라도 4基의 施設容量 約313萬KW로서 年間 180億KWH의 電力を 生產하게 되어 하루

에 방가·C油 約30億원 어치가 節減되어 外貨 360萬弗이나 벌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建設中인 10號機가 1989年까지 다 竣工되어 稼動되면 施設容量이 762萬KW로서 年間 約 434億KWH로서 하루에 무려 550萬弗(約 44億원)의 外貨를 아낄 수 있는 엄청난 利得이 올 것을期待하고 있다.

그러나 資本形成이 脆弱하고 金利가 높은 우리 나라와 같이 나쁜 條件下에서 莫大한 資金이 所要되는 原子力建設이 앞으로 外貨依存으로 부터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技術自立과 機資材의 國產化가 매우 時急한 課題이다.

일찌기 英國 톰슨卿이 말하기를 「國力 = (人力 + 活用資源)意志」라고 하였다. 정말 이 公式은 우리에게 너무나 適中된 것이라고 보겠다. 그래서 5·6號機 建設부터는 意慾과 覺悟로 多小 無理가 있다 손 치더라도 直接事業管理하고 發電所의 性能을 責任지는 난·턴키方式으로 推進함으로써 建設單價는 約1,300弗以内이며 建設工期는 約85個月로서 世界的으로 成功한 事例에 들어갈 수 있는 展望이 엿보이며 그나마도 우리나라의 國力を 자랑하게 된 것은 대견스럽기만 하다.

언제나 時間은 흐르고 있다. 곧 未來는 주저하면서 다가서고 現在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過去는 永遠히 停止하고 있듯이 어제의 古里는 原子力의 姚람지요, 오늘의 古里는 原子力成長이고, 來日의 古里는 原子力의 昇華로 落피울 것이다.

끝으로 提言하고 싶은 것은 말보다 實踐, 干涉보다 協助, 模放보다 創意 또는 곁치레보다 實속있는 몸가짐으로 아스팔트를 轟는 竹箇처럼 서서히 자라는 「Atomic Mind」가 造成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이다.